

이번 활동가 인터뷰는 특별히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화천에서
곰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활동가 **민재**님과 **아라**님입니다. 먼저 두 분의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재: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12월부터 곰 보금자리에 들어와서 화천을 다녔고,
7월부터는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라: 안녕하세요. 저는 돌봄활동 2개월차 조아라입니다.

Q1.

민재님의 활동가 소개글과 사진을 보면 뭔가 신비로운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민재: 저는 첫 직장으로 동물자유연대에 있었어요. 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활동 홍보하는 게시글 쓰고, 후기를 쓰는 사무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동물을 직접 돌보는 일은 이번에 상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했어요.

Q2. 첫 직장으로 시민단체에서 일하셨다니 그 계기가 궁금해요.

민재: 꼭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뭘 해야 할지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동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동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때는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잘 알려진 단체들 위주로 알아보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Q3.

아라님은 가장 최근에 곰 보금자리에 합류하셨지요? 홈페이지에
따끈따끈한 프로필이 올라와서 보니 동물원 사육사로 근무하셨다고요.

아라: 네. 서울과 청주에 있는 동물원에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Q4.

그러면 동물을 돌보고 출퇴근하는 삶에 굉장히 익숙하시겠어요.
동물원에서 일하셨더라도 곰보금자리 돌봄활동을 지원할 때 마음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상근활동가가 되셨나요?

아라: 제가 경력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서 익숙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곰 보금자리 활동가 태규님과 근무를 같이 하면서 사육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생츠퍼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규님이 이런 자리가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에서 일할 땐 동물원의 여러

목적이나 근무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여기 지원할 때는 딱 사육곰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차이가 크긴 했어요.

Q5.

아라님이 계셨던 동물원은 곰 보금자리에 비해 규모가 크고 체계가 잡힌 곳이니깐 임금이나 직원복지 측면에서 더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화천 돌봄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근활동가 분들의 근무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활동가용 화장실과 수도가 아직 없어서 농장주 집에 가서 씻어야 하고, 중간에 밥 먹을 곳도 없고, 직원 휴게실로 쓰는 컨테이너는 없었다가 최근에야 생겼지요?

아라: 생긴지 한 달 쯤 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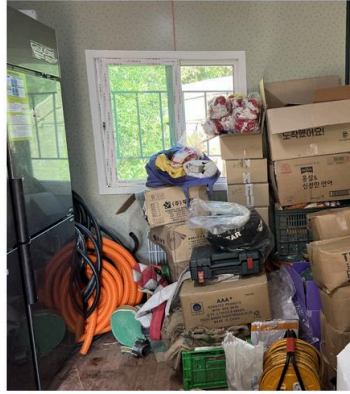
민재: 저희가 7월 4일에 일을 시작했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Q6.

아니, 그럼 3주 동안은 대체 어디에 계셨어요?

아라: 그냥 곰들 과일 냉장고 앞에 앉아있고.

민재: 창고 박스 위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 있고.



(설 곳이 없어서 뜨거운 여름을 창고와 길바닥에서 쉬어야 했던 활동가들)

Q7.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창고 풍경을 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7월**의 그 덥고 습한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재: 저는 이렇게 바깥에서 동물 돌봄 업무를 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밖에서는 일하기가 원래 어렵고 힘든가보다 했는데 아라님이 화장실은 없나요? 옷을 갈아 입을 곳은 없나요? 설 곳은 없나요? 물으셔서 그제서야 이곳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나 알게 되었어요.

아라: 저는 그럭저럭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네요.

민재: 가끔 동물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화천 공사 봉사하러 오시면 경악을 하세요. 본인 직장의 소중함을 알고 돌아가시더라고요(웃음). 퇴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화천에 한 번 오세요. 문명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Q8.

돌봄활동가들이 힘 내어 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저희가 좋은 생츄어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 마련해놓고 사람을 뽑았어야 하는데, 시간과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필요한 것을 들이는 일이 늦어지고 있어서 무척 죄송한 마음이에요.

민재: 저희는 뭐가 하나 생길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뭐랄까, 벅차올라요.

아라: 에어컨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박수를 막 쳤어요. 이제 컴퓨터도 곧 생기거든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Q9.

에어컨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추워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농장이 화천 시내에서 꽤 떨어져 있어서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운 곳에 있는데, 시내 숙소에서 지내시면서 매일 출퇴근하시는 거지요? 두 분의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라: 7시 반쯤 저희 둘이 말 없이 나가는 것 같고요. 농장 도착하면 8시쯤 되어서 곰들 먹이 준비하고, 청소하고, 애들 상태 확인하면서 오전을 보냅니다. 요즘에는 리콜 훈련을 시작해서 사육장 위로 자주 올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과 중간중간 올라가요. 오후에는 또 애들 먹이를 준비하고, 상태 확인하며 밥 주고, 시간 나는대로 풍부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Q10.

하루에 밥을 세 번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반려견도 하루에 세 번은 안 주는데 말이지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곰들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게시글에서 쓰신 것처럼 동선이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윗 라인, 아래 라인, 냉장고가 있는 창고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니 상당한

육체 노동이다 싶었어요. 일하면서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일하면서 손목이나 허리가 아픈 것이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동물원에서 일할 때에도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거긴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는 원래 농장이었던 곳에 임시방사장을 만든 상태잖아요. 농장의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려니 힘이 더 많이 들고, 동선도 불편하죠.

민재: 저도 아라님이 말하신 것처럼 구조물들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문을 열 때에도 한번에 딱 잘 열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많이 줘야 해요. 그리고 동선이 긴데 사람이 둘 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몸이 힘든 것 같아요. 구조물들은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육체적인 피로감이 쌓이기는 해요.



(조리 공간이 없어 바닥에서 쭈그려서 먹이를 준비하는 활동가)

Q11.

두 분의 몸이 상하지 않아야 할 텐데...이제 곰들 방사장까지 쓰면 관리해야 할 곳이 더 많아져서 큰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화천 갔을 때 두 분이서 미자르의 첫 목욕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미자르가 거품 목욕을 한껏 즐기는 모습을 굉장히 흐뭇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평소에도 곰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공유해주셔서 보면 두 분의 애정이랄까 팬심이 느껴져요. 더 마음이 쓰이거나 애뜻하게 느끼는 최애곰이 있나요?

민재: 최애라고 말하면 편애하는 것 같아요. 신경이 쓰이는 애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미자가 눈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눈을 더 들여다보게 되고요. 미자가 옆방에 있던 알코르랑 싸워서 U1이랑 방을 바꾸었더니 방을 좀 넓게 쓰던 U1이 좁아진 곳에서 지내는 게 신경 쓰이고요. 유식이야 늘 아픈 애니까 마음이 계속 쓰이고, 우투리가 요즘 털이 빠진다고 해서 눈여겨 보고 있어요. 이렇게 상황 따라 눈 가는 애들이 달라져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 결국 13마리가 다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라: (끄덕끄덕)

Q12.

오랜만에 가서 보니 두 분이 돌봄 활동을 하시기 전과 후 차이가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곰들이 하루에 밥 세 번씩 먹고 사람들을 자주 봐서 그런가 움직임이 훨씬 여유롭고 안정감 있어 보였어요. 목욕할 때 좋아하는 곰들이 대형견 같기도 해서 여기 계속 있다 보면 곰들이 야생동물인 걸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도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민재: 사육곰들을 야생동물로 볼 수 있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사육장에 갇혀서 너무 오래 살았던 애들이라서요. 저는 집에서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화천에서 5일 동안 곰만 보다가 집에 돌아가서 고양이를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곰 발바닥 만한 애가 걸터다니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고양이는 작아서 그런지 갑자기 달려 와도 위협적이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존재이지만 곰은 그렇지 않아요. 곰들은 덩치가 훨씬 크기도 하고, 곰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갑자기 흑 달려올 때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져요. 곰들을 자주 보니까 곰이 철창 밖으로 팔을 흑 뻗고, 갑자기 달려오고 그런 상황이 쌓여서 확실히 야생동물은 사람과 같이 사는 개, 고양이랑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곰은 잘못하면 진짜 죽겠구나 싶어요.

Q13.

아라님은 이전에도 동물사육사 일을 하셨으니까 갇혀 있는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셨을 텐데, 반려동물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라: 많은 차이가 있죠. 저는 반려견이 있는데, 저희 강아지는 저랑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지요. 갇혀 있는 야생동물은 그렇지 않고, 몸이 야생에서 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람 곁에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곳의 곰들을 계속 보다 보니 친근감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 머리를 쳐야할 것 같아요. 정신차리지 않으면 다친다.

Q14.

두 분은 동물과 일하는 게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 더 좋으신가요?

아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너무 좋아요.

민재: 아라님, 사람과는 별로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라: 저는 인류애가 없어서 사람이 많으면 피곤합니다. 민재님은요?

민재: 글썄요, 사람은 아무래도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사람과 일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기분이고 어떻게 느끼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동물 돌봄 업무를 한 경험이 없고 동물별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 곰들에게 뭔가 해주었을 때 곰이 어떤 반응인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렵더라고요. 동물들이 제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어려워요. 이런 점에서 저는 사람이랑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나 생각해요.

Q15.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딴 곳에서 단 둘이 근무를 하시니까 적은 인원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서 외롭지는 않나요?

아라: 여기는 사람이 적어도 너무 적긴 합니다. 그래도 숙소에 돌아가면 민재님이 함께 있으니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민재님은 외로우신가요?

민재: 저는 사람 만나고 시끄러운 곳에 가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조용하게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아라님 말처럼 아예 혼자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으니까 대화 할 사람이 있고, 장난도 치고 하니까 외롭다는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적당히 말하고, 지치면 누워 있고, 각자의 생활을 가지는 걸 좋아하면서도 같이 재미있게 잘 지내니까 운 좋게도 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일요일에 다른 활동가분들이 많이 오시면 와글와글하게 사람 에너지가 충전됐다가 활동 끝나고 다들 가시면 좀 쓸쓸하긴 해요. 저도 사람이 필요하긴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라: 저는 곰 보금자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요일에 오시는 다른 분들을 아직 잘 알지 못해요. 일요일에 에너지를 몰아서 확 쓰고 다들 떠나시면 이제 쉬어야겠다 하고...

Q16.

두 분은 확신의 내향형 사람이군요. 곰 돌보러 화천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라: 제 집에서는 “네가 원하는 일이니” 이런 반응이었고 반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집이 있는 편이라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민재: 제 부모님은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혼자 나가 사는 것도 걱정인데, 화천이라는 낯선 곳에 가고, 운전도 이번에 처음 시작하고, 처음이 많은 환경에 가는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업무를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고집이 있는 편이라 말려도 듣지 않는 걸 아셔서 그냥 그러려니 하셨던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 중에는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일을 이해시키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하는 일이냐, 곰들이 왜 거기에 있고, 곰들이 못 살면 동물원 같은 곳에 팔면 되지 않냐, 왜 거기서 돌보아야 하냐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지요.

Q17.

두 분 다 좋은 고집을 가지고 계시네요. 돌봄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런 고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귀한 두 분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말씀 들으니 돌봄활동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 와 닿는데 이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시나요?

민재: 저는 봉사하며 화천 다닐 때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매주 갔던 것도 아니라서, 제가 상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별로 없었어요. 화천 다닐 때처럼 하되 좀 더 깔끔하게 관리하고 더 자주 밥을 줄 수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기대치가 그럴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라님이 경험 많고 지식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단풍나무를 뜯어 준다거나, 어구공에 구멍을 뚫어서 사료 넣고 장난감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하면 곰들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물놀이를 좋아하는 애, 어구공 좋아하는 애, 단풍잎이나 뽕잎을 좋아하는 애, 행동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애들에게 여러가지를 해 줄수록 저마다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여러가지 시도하는 게 상근의 일이구나 싶어요. 아라님의 옆에서 보고
도우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라: 저는 동물원에서 느끼는 것과 좀 다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물원에서는
선임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의 말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고, 관람객도 신경써야 하죠. 제가
나서서 하지는 않더라도 관람객이 동물을 보도록 억지로 노출시키는 등 동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동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서 동물원에 왔는데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곰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동물의 복지를 집중적으로 신경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어요.

민재: 아라님은 더 체계적인 곳에서 일하다 오셔서 이런 휘뚜루마뚜루 돌아가는 이 상황에
굉장히 어이가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에요.

아라: 어이가 없긴 없습니다(웃음). 그렇지만 체계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뭔가 색다르고, 일 하는 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Q18.

두 분은 활동가로서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이루고 싶은 바가 있나요?
어디서 이 일을 하는 동력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민재: 저는 염세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내가 이걸 해서 세상이 바뀔거야 이런 생각으로
활동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나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곰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동물이 사회 최약자라고 생각해서
약자들이 보호받고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순간순간을 살고싶다고 생각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 동물권이 증진되고,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진 않더라도요. 그냥 순간순간 해야 하는 일을 하자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라: 저는 아직도 활동가라고 불리는 게 어색해요. 곰 보금자리 일을 시작한 게 2개월 밖에
안 되었고 활동가 타이틀에 맞는 사람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력이라면 곰들의 반응을 보고 힘을 얻어요. 곰에게 뭔가 하나 해 주었을 때 새로운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육곰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육곰들의 복지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화천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웃음). 바라는 점으로 큰 것은 없고 당장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 땀이 나네요.

Q19.

화천에서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묘하게 담담하면서도 끈끈한 동지애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보기 좋고 든든했습니다.

민재: 그 텐션을 잘 유지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이좋은 동료로 잘 지내보겠습니다. 아라님은 제가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으실 텐데 옆에서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라: 서로에게 배우는 거죠.

두 분의 파트너십이 정말 멋있어요. 그렇지만 두분이 너무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저희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